페가수스 타기와 독수리에 업히기

(출19:1~6)

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삼 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2.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3.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페가수스 타기와 독수리에 업히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페가수스 타기와 독수리에 업히기’
페가수스에 올라타는 것과 독수리에 업히는 것이, 이방인과 선민을 구별하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고, 선민과 계약을 맺기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제시 하시는 내용의 차이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페가수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날개가 달린 신통한 말인데 날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습니다. 이 페가수스가 세상에 나오게 된 신화가 있는데, 메두사는 여자괴물로 눈이 왕방울만하고 커다란 입에서 혀가 축 늘어져있고 모든 머리카락이 다 움직이는 뱀으로, 영웅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라는 괴물의 목을 자르게 되자 그 피에서 태어난 것이 페가수스, 날개달린 말입니다. 페가수스는 주신 제우스의 천둥과 번개를 운반하는 신성한 말로서 인간은 탈 수도 없고 태우지도 않았는데, 벨레로폰이라는 영웅의 꿈에 여신 아테네가 나타나서 황금 고삐를 선물로 주고, 이 황금 고삐를 페가수스에게 채우자 벨레로폰은 인간이지만 페가수스를 탈 수 있었고, 머리는 사자고 몸통은 염소이고 꼬리는 뱀인 키메라 괴물을 퇴치하게

됩니다. 괴물 메두사를 죽였을 때에 페가수스가 태어나고, 벨레로폰이 그 페가수스를 타고 또 괴물을 무찌르는데 뭘 말하는 것일까요?
'메두사'라는 괴물은 사람을 쳐다보기만 해도 온 몸이 화석처럼 굳어지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이 신화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욕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기만 하고 생각만 해도 사람의 마음이 질려버리는 인생의 모든 방해물들 장애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애 속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장애와 방해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바람과 꿈이 페가수스로 표현되고, 벨레로폰이 페가수스에 올라타서 또 다시 키메라라고 하는 괴물을 물리치는 것도 또 인생의 방해물을 제거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말(馬)은 옛날에 인간이 공간이동을 위해 채택한 수단들 중에 가장 빠른 수단으로, 말을 타고 달리게 될 경우에는 어떤 것보다도 더 빠르고 잘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일하고도 최선의 방법이 말을 타는 것인데 강을 만나고 계곡을 만나고 높은 산을 만나면 그만 이 말은 힘을 못 쓰고 달리지를 못하게 되자, 인간의 욕망은 그 한계에 날개를 달아준 것입니다. 이제 땅을 달리다 장애물이 있으면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 날개로 넘어가면 되고, 메두사나 키메라와 같이 무시무시한 내 생애를 파괴할 것 같이 다가오는 모든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날개 달린 말!
벨레로폰이 황금 고삐를 받았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돈을 쥐게 되면 사람들은 모든 장애물들을 거의 다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데 돈의 힘이 황금 고삐입니다. 그러나 페가수스를 올라타는 것은 망상이고 꿈이고 실현 불가능한 이상일 뿐, 다시 말해서 장애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상이고 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선민이 계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시는데,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시내 산까지 독수리 날개 위에 업고 인도하였다고 하십니다.
왜 독수리 날개일까요? 독수리 날개가 아닌 사자 등에 업히면 안 될까요? 사자는 이 세상에 있는 동물 중에 가장 강하니 그렇게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자 등에 업혀서라고 말 할 수 없는 것은 사자는 어디까지나 땅을 딛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출애굽 할 때 애굽과 싸워서 이겼다든지, 홍해에서도 순식간에 뗏목을 만들어서 건넜다든지, 쫓아오는 애굽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든지, 또 사막에서 어렵게 구덩이를 파서 물이 나왔다든지 하는 이스라엘의 노력이 가미가 되었을 때는 사자 등에 업혔다는 표현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열 가지 재앙을 통한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 만나를 먹은 것, 물을 마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구경만하고 있었고 하나님 혼자서 다 행하신 것이었으므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다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대 제국의 모든 행정체제, 정치체제, 사회체제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은 체제였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빠져나온다는 것은 대 제국의 체제 자체를 허물어뜨려야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옛날에 25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노예가 빠져나왔다는 것은, 대 제국인 애굽의 체제 자체가 방해물이고 장애물이었는데,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상상으로 페가수스를 만들어 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 장애를 넘었기 때문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말을 타고 가면 바다에 막혀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기에 인간들은 말에 날개가 달리기를 바라지만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선민에게는 이 땅을 달리던 말에게 날개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땅을 밟지 않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홍해바다의 장애를 넘게 됩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광야에 들어오자 광야자체가 인간 생애의 장애이고 방해입니다. 사막은 물을 주지 않고 양식을 줄 수 없는데, 이런 장애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도 양식과 물이 조달되고 시내 산까지 오게 되므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독수리 날개로 업는다는 이야기는, 선민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고, 삶의 방식은 계속해서 독수리 날개에 업혀서 사는 것으로 장애물 제로, 방해물 제로의 삶을 살 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달리던 사람들이 날개를 단 페가수스를 창조한 것은 그들의 꿈이고 이상이고 이방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욕망으로, 방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방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선민은 땅을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늘을 나는 독수리 날개에 업혀서 사는 것으로 이것이 선민의 삶의 방식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나의 선민이고 백성이고 소유가 되었음으로 너희 인생에서는 장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방해물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당신에게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4절 하반절에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시내 산에 계십니까?

시내 산에 강림하시는데 어디에 계시다가 강림하십니까? 하늘에 계시다가.

그러므로 ‘내게로 인도했다’라는 이야기는 모든 출애굽의 과정과 홍해를 건너고 광야 과정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의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이 땅이 다인줄 알고 살았고, 눈에 보이는 우리 가족과 내 자식이 다 인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모든 역사를 행하시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하늘이 땅이라는 현실보다도 더 우선적인 현실이고, 그 하늘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고 그 하나님께로 마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 내가 있는 줄을 알았으니, 너희의 삶은 이제부터 독수리 날개에 업혀서 사는 장애 프리의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가 몸으로 살아야 될 이 땅의 모든 삶의 영역과 현장들이 다 내게 속한 것이므로 너희는 장애 프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로 인도되어서 어디에 머물며 살아갑니까?
부모를 통해 인도되고 사회 경험을 통해 인도되면서 돈이 있어야 최고로 잘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돈에 인도되어서 마음이 머물며 살아가는데 이것이 페가수스를 원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인도되어서 마음에 권력을 품고 살아가는데 자꾸 장애가 생기니 페가수스를 욕망합니다만 페가수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민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이 인도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는 동안에는 장애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인데 그러나 여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단서.
세상 사람들은 페가수스를 올라탑니다.
‘탄다.’는 것은 페가수스가 나를 업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페가수스가 나를 업었다면 페가수스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올라탔다면 올라 탄 자가 페가수스의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입니다.
독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독수리를 올라타면 독수리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업힌 자는 업은 자가 주인이 되어서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면 내가 가고자 하는 소원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대로 업혀갈 수 있는데, 선민들이 어떤 경향을 띄느냐면 독수리에 업히는 것이 아니라 올라타

려고 합니다. 페가수스를 올라타고 싶었던 욕망이 사라지지 않아서 페가수스 대신에 나타난 독수리를 올라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업히는 것이 아니라 올라타려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고 싶으신 일들을 향해서 가실 때에 업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페가수스를 올라타고자 했던 기질로 독수리를 올라타려고 하는데, 이것이 선민의 불행한 역사가 시작되는 시발점으로 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독수리에 업혀야 하는데, 페가수스를 올라타려고 했던 죄적 성향이 남아서 독수리를 올라타려고 하는데 이 싸움이 계속 됩니다.

독수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장애를 넘나들고 하늘로 날 수 있는 존재로 장애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올라타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올라 탈만한 독수리가 되어주시질 못하니,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 같은 각종 우상으로 빠져나가 섬기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불상 앞에 절하지는 않지만 똑같은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씀은 결국 업혀야 한다는 것이고, 업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말이 지켜지지 않게 됩니다. 말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는 내가 페가수스를 올라타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으면, 하나님께로 인도된 대로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 들여야 하는데, 인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한눈을 팔면서 마음에 돈, 권력, 건강, 인기 등 다른 것들을 집어넣는 바람에 자꾸만 페가수스에 올라타던 기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독수리에 올라탈 수 있습니까?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께 인도되질 못했기 때문이고,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질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과 언약의 집약적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셨고, 십자가 사건은 새 언약으로 언약의 완성이고 말씀의 총화로 독수리에 업히는 것인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은 것을 내가 죽은 것으로 여기면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고, 언약을 다 지키는 것이 되므로 이것을 계속 생활화해야 합니다. 교리적으로 공부하고 성경공부 시간에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생활화해야 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생활화하면 이 구약부터 신약 전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고, 그렇게 생활할 때에 성령의 아

홉 가지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고 율법이 다 지켜지게 됩니다.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말씀과 언약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으로, 내가 죽은 것이라고 믿기만 하면 내 마음이 독수리이신 하나님의 등에 업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장애 없는 삶을 우리의 현실에 허락하시게 됩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시내 산까지의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바대로 광야의 장애도 이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 아무 준비도 없이 뛰어든다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인 샌드위치 같은 장애도 뛰어넘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이라는 대 제국의 국가체제가 억누르는 장애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단, 내가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업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의 것을 담고 있으면 올라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페가수스를 만들어서 올라타고 싶어 했던 죄적 욕망이 그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언약이 집약된 단 하나의 사건인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부터 시내 산에서 선민이 지켜야 될 많은 항목이 제시되지만 다 지키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고백이 생활화되고, 내 눈 앞에 보이는 가족과 직장과 모든 순간과 모든 대상들 앞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독수리에 업히게 되고 출애굽과 홍해를 지나 광야의 장애물을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내려다보듯이 넘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내 산에서 계약을 맺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장애 프리의 삶과 방해 프리의 삶은 독수리에 업히면 되는데, 말씀과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은, 십자가 주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을 생활화하면 됩니다.
교리적으로 인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내가 죽은 자라고 인정하면 마음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갖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하십니다.
‘소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미 세상은 다 하나님께 속해있고, 그 모든 속해있는 민족 중에서 새삼스럽게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의미는, 동시에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내가 돈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내 마음이 돈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어떤 여자에게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 안에 그 여자를 들여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죽고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모셔 들이겠다는 이야기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독수리 등에 업혀서 장애물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날개달린 말을 타고 세상을 사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한 하늘을 나는 독수리 날개에 업혀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있을 수도 없는 현실을 선민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선민다운 선민 되기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독수리에 업혀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